

2010년 북한자유주간을 위한

미 하원의원 트랜트 프랭크스(공화당, 애리조나주)로부터의 메시지

‘그들도 인류자유의 햇살속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소서’

아마도 김정일의 잔인한 정권 아래 있는 북한만큼 인류의 자유가 공격받는 나라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북한자유주간은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상기시켜주며 또한 부정과 전체주의에 의해 희생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책임에 대해 생각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너무도 당연시 여기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 즉, 집회의 자유, 발언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북한자유주간은 최초로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북한에 방송을 보내고 있는 주요한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방송과의 인터뷰에서부터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북한으로 보내는 풍선전단 날리기 활동까지, 많은 북한 주민들이 북한자유주간에 벌어질 다양한 행사를 통해 감동할 것입니다.

무고한 북한 주민들의 실상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비극이며, 인류 역사에 영원한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미 국무부와 인권단체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인권문제와 인도주의 상황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 수용소에 관한 보고서들에 따르면 적어도 20만명의 북한주민들이 매우 열악한 정치범 수용소의 상황 아래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감자들은 이러한 수용소에서 잔인하게 고문당하고 심지어 공개처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처참한 상황에 놓여있는 북한 주민들을 지지하기 위해 이러한 글을 쓸 수 있어서, 그리고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북한인권을 위해 일해온 북한자유연합의 여러 회원들과 기관들 특히 수잔 솔티 회장의 노고에 감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북한자유연합과 같은 단체들이 북한의 처참한 인권 실상에 대해 사람들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주민들을 대신하여 북한자유주간을 준비하고 또한 참여하는 데에 많은 수고를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해, 우리는 북한도 미국처럼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날을 그리고 기나긴 고통끝에 북한 사람들이 스스로 인류자유의 햇살 속으로 걸어가는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호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2010년 4월23일

미 하원의원 트랜트 프랭크스 올림